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정책브리핑

엠바고 '17. 7. 24(월) 밤12시부터 보도가능

배포일시	2017. 7. 24. (월)	담당부서	미주통상과
담당과장	미주통상과장 박찬기 (044-203-5650)	담 당 자	이디도 사무관 (044-203-5656)

산업부, 미국 USTR 공동위 개최 요청에 답신(答信) 발송

- 개최장소는 서울로 제안, 개최시기는 추후 협의해 나갈 계획 -

- 한미 FTA 효과에 대한 객관적 조사, 분석, 평가방안 논의 요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2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7.12. 서한에 대한 **답신을 미국에 발송했다.**

< 미국무역대표부(USTR) 서한(7.12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요청 >

◇ **(목적)**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정 개정 및 수정가능성을 포함, 협정운영 검토

◇ **(시기/장소)** 요청 이후 30일 이내 워싱턴 디씨(D.C.)에서 개최되기를 희망

□ 백운규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써,

○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같은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 또한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미국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함을 알리면서,**

○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했다.

□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산업부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Minister for Trade, 공동위원회 우리측 공동의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 오늘 답신은 지난 7.12. 서한으로 미국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 양국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첨부 : 우리측 답신(영문 사본 및 국문 비공식 번역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박찬기 과장(044-203-5650), 이디도 사무관(044-203-56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영문 서한 사본

첨부 2 국문 비공식 번역본

2017.7.24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무역대표님,

지난 7월 12일 대표님께서 제 전임자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내주신 서한은 잘 받았습니다.

지난 6월말 문재인 대통령님의 방미기간 중 이루어진 첫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양국간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치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서,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한미 FTA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서, 양국에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同 지역에서 미국의 참여와 전략적 리더쉽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對한국 상품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균형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해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귀하가 서한에서 요청하신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와 관련, 우리 정부는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우리부 내 통상조직 설치, 공동위원회의 한국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개편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한국은 공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위해서는 귀하의 서한에서 제기된 이슈들과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에 미친 전반적 영향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 同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장소와 관련, 협정문상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의제 등 세부사항은 양국 정부 관계관간 협의를 통해 논의, 결정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대표님과 무역대표부에 인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를 고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 운 규

/서명/